

제368회 국회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4월18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1

(16시19분 개의)

○위원장 여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여상규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부분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였고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문형배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결론을 봤을 때 다소 우려되

는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적정의견으로서 법사위가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저희 야당만으로도 의결정족수가 된다면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앞서 지금까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주식거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청문회에서도 밝혔듯이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가 확인되었고 특히나 그 증여세 탈루를 확인하고도 납부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오히려 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과거 양승태 대법원에서 헌재에 대한 무력화 전략의 어떤 내용을 실제 지금 청와대가 실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 새롭게 나온 내용을 보면 이미선 후보자 추천을 청와대가 했던 이유가 노동 문제의 전문가로서 노동권 보호를 할 거라는 근거를 가지고 국회에 후보로 추천했지만 2013년 대법원이 선고한 통상임금 판결에서 사법부가 청와대와 함께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 협력을 위해서 통상임금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대법원이 법관의 양심이나 법리에 따라 해석하기보다는 당시 정부가 요청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서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재판연구관으로서 반노동자적인 판결의 논문

을 작성하고 그 결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당시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게 하는 데 오히려 사법농단의 부역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시고 반드시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문형배 후보자, 저희들이 직접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소신 그리고 도덕성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가 두 사람의 후보자에 대해서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청와대의 뜻과 달리 연계전략으로 해서 두 사람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조차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정말 민심에 역행하는 오만한 민주당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의혹이 해소됐다고 말씀을 하는데 방금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사법농단 사건에 있어서 부역자 역할을 한 강한 의혹이 있고 또 이 의혹을 현직 법관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현직 부장판사가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의혹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OCI그룹의 고위 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사장급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OCI의 경영지원실장, 사장급 인사를 맡고 있는 분은 허 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그분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부장판사로 있을 때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수안 전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형사2부에 있었고 당시에 여러 법관들이 같은, 민사부면 민사부, 형사부면 형사부 법관들 간에는 함께 식사도 하고 상당히 깊은 친분을 나눴던 그런 법원 분위기라는 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시간적 한계, 정보 접근의 한계, 자료 제출의 한계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형사재판실무연구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서 배우자와 OCI 경영지원실장은 친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현직 법관이 익명으로 법관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친하지 않다, 이 사람을 모른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겠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증권 전문가나 현직 법관들이 투자 종목을 선택하고 본인의 주식재산 전부의, 거의 68%의 재산을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에 하는 것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내부정보를 알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이고 이런 의혹은 지금 추가로 더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의 의뢰에 의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심리를 정식으로 요청받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PPT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제출을 극렬 거부하고 있는 후보자, 이것은 검증받을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다. 제가 인사청문회 당일 종목별 매매손익 내역과 계좌원장 상세본을 달라고 요구했고 오후 4시 반경에 제출한 것은 그중에 미래에셋대우의 2004년 9월 15일부터 2005년 1월 30일까지 4개월 반 배우자가 법관으로 있을 때의 상세본이 유일하게 제출된 것입니다. 나머지 상세본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PPT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재요청한 내용, 또 인사청문회 마친 이후에 제가 12건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출했던 금융정보거래의 제출동의서 사본을 내 달라, 증권사별 수·발신 내역 등을 내 달라 해서…… 마지막으로 이미선 후보자가 미래에셋이나 신한금융투자에 배우자로 주문대리인 등록, 주문 위임을 신청했는지 여부, 그것을 신청했다 그러면 등록신청서 사본 등,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이 후보자의 그리고 그 배우자의 변명의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인사청문회를 담당하고 있던 헌법재판소 실무자한테 이러한 사항을 후보자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곳에서는 다 전달을 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게서는 헌법재판소 실무자한테 알꼈더라

는 답변을 계속 했지만 지금까지 제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과 배우자에 제기되고 있는 주식투자 의혹에 대해서 해명 의지가 전혀 없고 막연히 언론에 나가서 배우자가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처럼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 제출도 전혀 성실하지 않게 하고 있는 이런 점 그리고 무엇보다 현직 법관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판결, 부역자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또 판사들이 여러 곳에서 이 후보자는 그 자리에 가서는 정말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소신이나 무책임이나 책임회피하는 등 정말 역대 최악의 후보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여성이라는 이유가 양해될 수 없는 것이 남편 의존형, 무소신, 무능력 또 무책임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오늘 어느 여성 사설위원, 칼럼니스트께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 전체에 대한 모독일 수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남편에게 의지하는 여자, 그것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말을, 오히려 여성 칼럼니스트가 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민주당의 연계전략에 의한, 두 후보자 모두를 같이 상정하고 논의해야만 참석하겠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뜻을 저버린 그리고 의회주의를 무참히 짓밟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의회적인, 비민주적인 행태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위원 저희가 청문회를 하면서 맨 처음부터 과연 우리가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겠냐, 청문회의 부정론을 상당히 제기했는데 결국 올 것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청와대는 헌법재판소를 청와대의 부속기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미선 후보를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개미투자자들은 다 돈을 잃었는데 여기는 2001년에 1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35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투자방법이었는지를 의심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논문 부분에서 맨 마지막의 영문초록은 다른 대학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 나온 논문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이게 판사의 양심과 도덕이 제대로 된 건지. 그다음에 증여세 탈루 부분, 두 자녀의 증여세 탈루 부분도 밝혀지지 않아서 마지막에 이게 세금의 탈루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처럼 자료 제출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검증하고자 했던 독일 출장, 루프트한자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서는 본인이 후보자가 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조국 수석이나서서 여러 가지 대변하는 것 그다음에 남편까지 나서서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사회를 아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미선 후보는 절대적으로 임명철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증여세 탈세 그다음 논문 표절, 주식거래 이렇게 의혹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제기되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자질과 능력 이런 걸 저희들이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질과 능력 면에서 저희들이 검증을 했을 때도 대체가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야 할 높은 학식과 경륜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과연 이미선 후보자가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냐에 대해서 청문요청 사유에도 그렇고 이 청문회장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고 본인도 그걸 내세워 극력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궁색해진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높은 학식과 경륜 그리고 객관적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헌법재판관후보로서 이미선에 대해서 새로운 논거를 만들어 냈습니다. 40대, 여성, 지방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 또한 궁색한 나머지 나온 것이다. 다시 돌이켜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미션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입니다.

이 사유서 어디를 봐도 이미션 후보자가 40대, 여성, 지방대 출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 문장도,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주식거래, 탈세,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되니 이제 감성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자질과 능력 면에서 이미션 후보자가 태부족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검증하고 지명한 쪽에서 강하게 반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망신 다 시킨 이미션 헌법재판관후보자’라는 칼럼이 하나 나와 있고요. 지금 코트넷이라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많은 법관들이 이미션 후보자에 대해서, 자질·능력·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좌편향적이라고 하면서도 또 시류에 영합해서 법률적 견해를 달리하는 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큰 약점 중에 하나였고 가장 중대한 낙마 사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또 법원 내부 통신망에 문제 제기가 하나 있었지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대해서 옹호하는 글을 썼지요, 이미션 후보자가.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려운 상황, 즉 사법농단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또다시 다른 글을 통해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시류에 따라서 통상임금, 즉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임금체계에서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입장이, 대법원장의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 그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이 면을 볼 때 과연 이미션 후보자가 저희들이 걱정하고 증명해 냈듯이 자질이 있느냐? 저희들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1분만 좀 더 주시지요.

그리고 청문회 이후에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많은 문제를 노정시키는 이미션 후보자가 어떤 검증절차를 거쳤느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 통상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는 검증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원 소속기관에 이 후보자의 업무능력이 어떤지 세평은 어떤지 자질은 어떤지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미션 후보자를 지명하는 그날까지 청

와대 인사검증팀에서 대법원에 이미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미션의 평가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 자질, 능력 이런 것은 다 차치하고 기승전코드다. 코드만 맞으면 무조건 임명을 강행한다. 그래서 6년이라는 장기간의 임기가 보장되는 헌법재판소를 좌편향적인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시도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가 이미션 재판관후보자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미션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은 검증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안건이 상정된 상태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발언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행정실에서 박지원 위원님 좀 확인해서 채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데 여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또 대통령께서 국회에 두 분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재송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는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내부적으로는 문형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채택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형식적으로 이미션 후보자 때문에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된 청문회에서 문형배 후보자를 희생시키는 이 모습이 과연 적절한 행위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또 청문보고서를 무조건 야당이 발목 잡고 안 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

려 야당이 문형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는 정말 천양지차로, 하루 간에 청문회를 했지만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역량이나 자질적 측면에서 적격 의견으로 채택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당은 정말 반성하고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지난 4월 11일 날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11일 날만 두 번의 글을 올렸고 12일 날 세 번 그다음에 13일 날 2회에 걸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그 이후에 5일간 페이스북 글이 멈춰져 있는데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그만 멈추라고 해서 멈추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밝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상하고 기형적인 청문회의 역사를 남기게 됐습니다. 후보자는 ‘나는 무조건 몰라요’, 그리고 배우자가 나서서 모든 걸 해명하면서 여론의 힘을 받고자 했으나 오히려 더 역풍이 불었고 국민적 여론의 힘에 무너져 내린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오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선 후보자는 이 정부의 코드와도 맞지 않는, 그냥 단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돼야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법농단의 한 중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미선 후보자는 검찰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60여 명의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그 명단에 이미선 후보자가 들어 있는 것인지, 지금 증인채택이 됐다고 하는데 향후에 정계대상자일 수도 있는 그리고 앞서 채이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법농단에 함께한, 부역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찌이게 노동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지명철회하고 아니면 이미선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상정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할 차례입니다만 지금 야당 위원님 아홉 분이 참석해 계시고 역시 야당 위원인 박지원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열 분이 되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합니다, 과반이 참석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래

서 토론을 하면서 박지원 위원님의 출석을 기다려 왔습니다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박지원 위원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민주당 쪽에서 불참을 종용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보고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어떻든 박지원 위원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석을 안 하고 있다가 정확히 4시 40분, 회의 개의 40분이 지난 4시 40분에 다른 일정이 생겨서 이 회의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지금 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해서 송부해 달라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대체 어떤 생각이 들는지 또 여당 위원님들에게 무슨 말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주지 않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청와대 측의 의견에 의하면 민주당의 직무유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못 하고 산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께서 참석하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석하신 야당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참석하신 야당 위원님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의결을 할 때 오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또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인 저까지 포함해서 아홉 분의 야당 위원님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왜 이렇게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기다렸느냐? 바로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런 회의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위원들께서 이렇게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면서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

국회 역사상 처음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법사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익우선·법치수호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국익이 무시되고 법치가 유린되는 이런 법사위 현실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했던 문형배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조차도 무산됨을 공지합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박지원 위원님이 지금 불출석해서 의결정족수를 못 채우고 있는데 박지원 위원님만 오신다면 참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텐데 한 번 더 위원장님께서 또는 민평당의 원내지도부에게다가 한번, 잠깐 정회하시고 한번 더 의견 타진을 한 뒤에 최종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몇 분 정회를 하시고, 저희들은 충분히 기다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위원장 여상규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본인이 다른 일정이 생겨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보내왔는데 다시 전화를 한들 그런 의견이 채고돼 가지고 참석을 할 수 있을지 지극히 불투명합니다마는……

그러면 잠시 한 5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정각에, 정확히 한 7분 뒤입니다마는 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야당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박지원 위원을 출석케 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마는 신호는 가는데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평당 대표이신 정동영 대표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만 거기 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박지원 위원께서는 어디 지역으로 내려가셨다는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참석은 불가능해졌고요.

정말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해서 일부지만 대통령께서 요청하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 위원님들 한 분도 참석하지 않고 박지원 위원님조차도 참석하겠다는 생각을 바꿈으로 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채택하고자 했던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마저 채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 ○출석 위원(9인)

김도읍	여상규	오신환	이완영
이은재	장제원	정갑윤	주광덕
채이배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	이문한
전문위원	권태현